

황새 다리를 잘라 뱀새에 붙였으니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은 모든 선거구에서 단 한 명의 단체장도 당선시키지 못했다. '유효 슈팅 제도'의 참담한 패배를 맞은 것이다. 애초 지방 선거 선전을 목표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돼 지난 2월 출범한 바른미래당은 불과 1달 만에 다시 간판을 내릴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사이에 낀 '원내 3당'의 한계를 끝내 넘지 못한 채 당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의 참패는(이번 선거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함께 망하긴 했지만) 거대 양당 체제라는 정치 현실에서 제3세력을 유지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 준다. 물론 바른미래당의 몰락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선 갈등의 씨앗이었던 '태생적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보수도 진보도 아닌, '합리적

중도'(호남)와 '개혁적 보수'(영남)의 결합을 표방하고 출범했지만 정체성의 혼란만 있었을 뿐이다.

국민의당 대 바른정당, 호남 대 비호남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기보다는 당 통합 후 선거를 치르면서 오히려 더 벌어졌다. '노원병' '송파골'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후보 공천 과정에서 안철수계와 유승민계가 공천 갈등을 벌였던 것이 대표적 사례다.

바른미래당 몰락과 '사꾸라'론

언뜻 보면 둘 다 '가운데'인 것 같지만, 원래 왼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국민의당과 오른쪽에 훨씬 기울었던 바른정당의 '이종(異種) 교배' 정치 실험은 결국 실패로 귀결됐다. 한국 불교계의 대표적인 선지식인 고우 스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황새 다리를 잘라 뱀새에 붙이는 식의 절충'이었으니 애초 성공을 기대하는 게 무리였을지 모른다.

헌법학자 김철수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 대통령제 정치 현실에서 제3의 정당 출현은 쉽지 않다. 출현한다고 해도 '사꾸라'라고 비판되어 결국 여야의 큰 정

당에 흡수되는 경향을 보였다." 유신 시절인 1970년대 중반에 신민당의 소석(素石) 이철승 대표가 '중도통합론'을 들고 나왔다가 '사꾸라'라는 거센 비난을 받은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겠다.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과 더불어 1970~80년대 한국 야당을 이끈 주역이었던 소석은 이후 정치 수명이 다하면서 쓸쓸히 정계를 떠나야 했다.

사꾸라란 '여기 와선 이 사람 편인 척, 저기 가선 저 사람 편인 척 애매하게 구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본래는 벼꽃을 뜻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본래의 의미보다는 변절자·사기꾼의 뜻으로 더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말고기를 '사꾸라니꾸'(さくらにく)라고 하는데 말고기의 색깔이 벼꽃과 같은 연분홍색이기 때문이다. 한데 변절자라는 뜻으로 변한 '사꾸라'의 어원을 보면, 소고기인 줄 알고 사서 먹어 보니 말고기였다가 데서 비웃었다고 한다.

지조론(志操論)으로 유명한 조지훈 선생이 '사꾸라'론도 썼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선생은 1964년 '신동아' 10월호에 실린 이 글을 통해 당시의 사회상을 진단했는데 매우 이색적인 주제였

던 만큼 시종의 화제가 되었다고 한다. 한 일 굴욕 회담을 둘러싸고 야당이 강경파와 온건파로 갈려 대립이 심했던 그 시절, 특히 국회의원직을 내딛고 반대 투쟁을 전개한 강경파들이 온건파를 '사꾸라'로 비판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제 사꾸라란 말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선생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자. "요즘 유행하는 '사꾸라'란 말은 분명히 일본말인데, 그 확실한 어원은 일본 기자가 때때로 생긴 이름이다. 이 '사꾸라'의 어원에 대해서 나는 역시 '사꾸라' 곧 '앵'(櫻:벚나무)이라고 본다. 첫째, 일어(日語)에 말고기(馬肉)를 '사꾸라'라고 하는데, 이는 말고기 빛깔이 쇠고기 같이 암적색이 아니고 흥색 곧 연분홍색에 가깝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말고기를 쇠고기인 양 파는 것은 가짜를 진짜라 하는 것이요, 또 양두구육이다."

"또 이보다도 더 현행하는 '사꾸라'의 어원에 가까운 직접적인 어원이 일어에 있다. 그것은 장사꾼이 저의 패거리를 손님들 속에 섞어 놓아 흥정과 속임수를 손리하도록 작용시키는 것을 '사꾸라'라고 했던 것이다. 사꾸라 꽃잎처럼 흩어 놓는다는 뜻이었던 듯하다." 여기에서 사꾸라의 의미는 프락치(조나폴)에 더 가깝다.

시인이자 국문학자였던 조지훈 선생은 이처럼 사꾸라의 어원을 살핀 뒤 당대의 정치 현실에 일침을 가한다. "사꾸라"는 의식적인 '사꾸라'도 있고 무의식 중에도 모른 사이에 '사꾸라'가 되는 수도 있다. 오늘의 '사꾸라'의 대다수는 이 무의식적 '사꾸라'일 것이다. 그러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 결과에서는 마찬가지다. 왜 '사꾸라'가 되느냐, 부당한 적의 전술을 방조하느냐 말이다."

다당제 뿌리 못 내리고 시들

바른미래당이 이번 선거에서 몰락한 것은 국민들이 그들을 선명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말하자면 '무의식적인 사꾸라'로 보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그토록 표에 인쇄한 것은 아니었을까. 문제는 '한 지붕 두 가족'이라는 바른미래당의 내부 갈등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이다. 당장 엇그제 열린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워크숍 결과 당의 정체성에 '진보'라는 표현을 명시하자, 옛 바른정당 출신인 사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

당초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결합에서 '합리적 중도'를 '합리적 진보'로 수정한 것인데 단지 두 글자 바뀐다고 해서 이미 멀어진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까. 오히려 지방선거를 거치며 양측이 갈등을 거듭해 왔다는 점에서 합당 당시 불거졌던 이념 논쟁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특히 앞으로 치러질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 정체성과 관련한 이념 노선이 재점화되어 각자도생에 나설 경우 분당 수순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호남계가 떨어져 나와 민주당이나 평화당으로, 나머지 인사들은 한국당에 흡수되는 시나리오다. 이쯤 되면 분당이 아니라 공중분해 수준이다.

이런 비극적인 종말을 면해 보고자 바른미래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했다. 비대위원장은 박주선·유승민 공동 대표의 사퇴로 대표 권한대행직을 맡은 김동철 원내대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앞길은 여전히 순탄해 보이지 않는다. 당의 화학적 결합과 정체성 확립을 당면 과제로 내세웠지만, 일대 경성(驚醒)하지 않고서야 어찌 '운개일출'(雲開日出: 구름이 걷히니 태양이 절로 나오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경찰 재량권 확대

수사권 조정안 내용

검찰의 통제장지도 마련

21일 정부가 발표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은 송치 전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결권'을 주는 등 경찰 재량을 대폭 확대한 게 핵심이다. 또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신구속 등 강제수사 절차가 필요하면 송치 전이라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경제장지도 마련됐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을 수평적 협력관계로 설정해 놓고 이 같은 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할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 직접수사 대상을 일부 범죄로 제한하긴 했지만 비대해진 검찰 권한을 줄이는 데도 여전히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합의문에 따르면 검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가진다. 검찰은 사건을 넘겨받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수사를 지휘할 수 없다. 현재는 일부 중요 범죄의 경우 경찰이 수사를 개시할 때부터 검찰에 지휘를 건의하고 모든 사건 수사에서 단계

별로 검사의 지휘를 받게 돼 있다.

검찰이 경찰을 지휘·감독하는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규정한 점도 일선 경찰의 수사에 상당한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그러나 조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장지도 곳곳에 마련해 뒀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이 신중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다. 경찰관이 요구에 따르지 않다면 경찰청장 등 징계권자에게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도 인권침해나 수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면 검찰은 경찰에 사건기록 등본 제출과 시정을 요구하고 경찰은 이에 따르도록 했다. 시정되지 않는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했다. 경찰 내부에선 이 같은 징계요구 장치 등에 대해 오히려 이전보다 퇴보한 조정안이라는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종결한 수사 역시 검찰이 재차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 내부에도 모든 불송치 결정의 적법·타당성을 검토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조정안은 부패·공직자 범죄, 경제·금융 범죄, 선거 범죄 등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제한했다.

다만 이 같은 여러 통제장치가 얼마나 실효성을 거둬들이는 데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많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번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보완수

사 요구 방안에 대해 "이미 해방 이후 미군 점령 시절 도입했다가 실패한 제도"라는 의견을 냈다.

현재 수사지휘도 강제할 수단이 마땅치 않아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한데, 수평적 관계에서 보완수사 요구가 얼마나 먹히겠느냐는 것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7년 만에 국회 오른 수사권 조정안 통과될까

정부가 21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을 내놓으면서 최종 입법 작업은 국회에 맡겨졌다. 하지만, 국회의 향후 입법과정에서 적잖은 차질과 진통이 예상된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하지 못하면서 국회가 장기공백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수사권 조정 정부 안에 합의하고 합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건 7년 만이다.

일각에선 검찰 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는 9월 정기국회에 서나 가능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나온다. 더욱이 국회 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해도 정부 합의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유지될지는 불투명하다. 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개정 작업은 과거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국회 논의 단계에서 여러 차례 불발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의 반발이 여전히 자유한국당이 검찰 개혁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점도 변수다. /박지경 기자 jkpark@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주요 내용

관계	검찰	경찰
수사	'1차적 수사권'	•송치 전 수사지휘 폐지 •송치 후 보완수사 요구 권한
수사결권	'1차적 수사결권' •불송치 사건은 관할 검찰에 결정 등 통지 •국가수사본부(가칭) 설치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적법·타당성 검토	불송치 결정이 위법·부당한 경우 재수사 요청 권한
수사경합	검사 직접수사 분야 사건이 검찰과 중복될 경우 검찰 송치(단, 경찰이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범죄사실 계속 수사)	1차적 직접수사 분야 한정(비리사건,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 •수사 분야 이외의 고소·고발·진정 사건 경찰에 이송
자치경찰제	수사권 조정과 함께 추진 •2019년 서울, 세종, 제주 등 시범 실시 •대통령 임기 내 전국 실시	
영장청구권	합의문에서 제외(헌법개정 시간)	

임야·삽니다
지분물건 환영. 010-6834-74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공장
- 대지 14,916.9㎡, 건물 998㎡(HBM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건물일부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임대중

◆ 매매가 28억 ◆ (조정가)

인원산업(주)
010-3605-0214
062) 655-484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보성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입구 택지조성된 곳 660㎡ 1억
- 장성 북이면 장성면 인근 전 2136㎡ 주택·창고적합 4700만원
- 신안군 압해도 북동리 1810㎡ 저수지일 조용한생활 적합 4300만원
- 곡성 삼기면 대지등 681㎡ 광주서 30분내 5300만원

주택·원룸·아파트

- 월산동 소방도장 1층 임대 병3 주차장 4천에 45만원
- 화순 동면 땅 706㎡ 2층전원주택 상가주택·아파트와 교환용 2억6천
- 월산동 소방도 땅 165㎡ 주택 179㎡ 3세대 생활용 2억3천

투자·매도·교환

- 쌍촌동 소방도 땅 118㎡ 2층 상가주택적합 1억3천
- 충남 보령시 원산도 664㎡ 농림 9천 취득 1억4천 매도 1300
- 영광 홍농읍 주거지역 2136㎡ 공사가 6700 매도 8700
- 곡성 입면 메실밭 등 11828㎡ 귀농생활에 최적 2억4천
- 화순 이양면 매정리 산 32923㎡ 국당 적합 7500만원
- 북구 망월동 주거지역 1650㎡ 전원생활 등 적합 4억3천
- 무인털부지 화순 도곡면 2008㎡ 위치좋은 6억천
- 수목장(장례)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6645㎡ 경관좋은 2억
- 수목원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8232㎡ 건평 1148㎡ 허가 10억
- 할광역 건너 대로점 2중주거지 3192㎡ 다양한용도 2억6천
- 태양광적합 영광 군남 반안리 114843㎡ 매도 8억
- 전원주택지 무안 운남면 내리 5000㎡ 법인이전 1억6500

상가건물

- 동구 충장로5가점 수기동 대지 168㎡ 2중건물 투지에 좋음 3억8천
- 북구 용동동 고시텔 대지 357㎡ 건평 45실 830㎡ 은행5억 교환가능 9억
- 가센터적합지 농성동 대지 182㎡ 3중건물 297㎡ 현재운영중임 4억
- 농성역 부근 대지 973㎡ 건물 457평 공시지가 18억 매도 39억
- 나주시 땅 4045㎡ 건평 5893㎡ 증축해서 요양병원최적 69억
- 북동 5중건물 대지 562㎡ 건평 1637㎡ 임대생활적합 14억
- 충장로5가 요지 대지 261㎡ 5중건물 1128㎡ 은행 15억 매도 24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사주학의 대가

동광스님비법공개

40년 내공으로 완성한 사주학 비법을 공개합니다

공개강좌(무료)

- 일시 : 2018년 7월 8일(일) 오후2시
- 장소 : 광주시 동구 대인동 한미쇼핑2층 (일월사 포교원)
- 대상 : 사주학, 역학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 공개강좌에 참석하셔서 새로운 사주학의 비법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교원 (062) 524-8020
원 장 010-8024-1433